

WISC 2012 (WAO International Scientific Conference)

참석 후기

아주대학교 병원 알레르기내과
전임의 김미애

2012년도 WISC에 다녀왔습니다. WISC는 2년에 한 번씩 WAO에서 주최하는 국제 scientific conference로 알레르기 분야의 임상적 지식 및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들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 집니다. 올 해 WISC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인도라는 나라도 생소하였지만, 뭄바이나 뉴델리가 아닌 하이데라바드라는 도시 이름 도 낯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 후, 남인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IT와 산업이 발전한 도시 이고 인도현대자동차연구소가 있는 도시라는 정보를 얻고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마음으로 비행기 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접 하이데라바드로 가는 비행기편이 없어서 꽤 긴 시간을 싱가포르 공항에서 대기하며 인천공항을 출발한 지 거의 20시간만에 하이데라바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학회 홈페이지에서 미리 공항-숙소 간 택시를 예약하였지만 택시 회사와 한 시간 가량의 실랑이 를 한 끝에 그닥 유쾌하지 않은 마음으로 숙소로 도착하여 짐만 풀고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사진 1) 학회장 앞에서 인증샷



사진 2) Welcome reception

다음 날 학회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캄캄한 밤에 도착하여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호텔과 학회장 전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밝고 깨끗하며 아름다운 모습이 어제의 불편한 마음 이 녹아내렸습니다. 다만 호텔이나 학회장을 출입할 때 늘 금속 탐지기와 짐수색을 하는 모습에 서 이 곳이 종교분쟁지역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학회 첫째 날은 가볍게 오전 아홉시에 시작되었고 하루 내내 Postgraduate course로 채워졌습니다. Basic science 보다는 임상적인 내용 이 주를 이루어서 알레르기를 시작하는 저에게는 더욱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여 러 교수님들께서 강의를 하시고, 좌장을 맡아 학회를 진행하시는 모습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너 무 뻥뻥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느슨하지도 않은 적당한 강도의 강의 스케줄에 오랜만에 의대 시절로 돌아가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한 느낌이 들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Welcome reception 이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음식도 맛보고 인도 전통 공연도 감상하는 시간이었

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아침 여덟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다양한 분야의 강의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논문에서 이름을 보던 유명하신 교수님들께서 천식, 두드러기, 아토피, 약물 이상 반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 결과와 배경, 향후 발전 방향까지 핵심을 콕콕 짚어 강의해 주셔서 마치 족집게 강의를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학회 기간은 총 4일이어서 좀 짧은 감이 있었지만 굉장히 밀도 있는 스케줄로 진행되었고 많이 배우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진 3) 좌장을 맡으신 오재원/지영구 교수님



사진 4) 좌장을 맡으신 김유영 교수님

아주대 박해심 교수님께서 Regional Advisory Committee Co-Chair로 수상을 하셨고, 전체 스물 아홉 명의 연구자가 OUTSTANDING ABSTRACT AWARDS를 수상하였으며 그 중, 대한민국에서 제출된 논문이 일곱 편이나 되었습니다. AAIR의 홍보를 위해 가져간 견본 책자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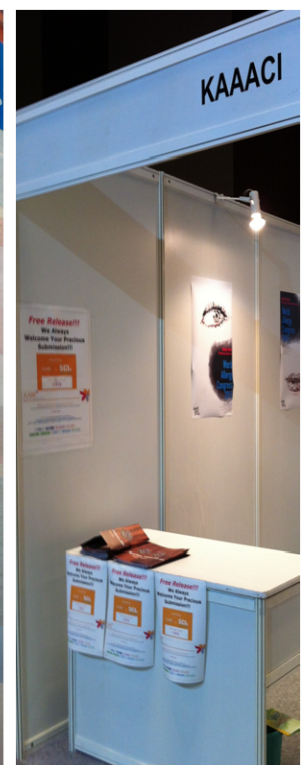


사진 5) 공로상을 수상하신 박해심 교수님, OUTSTANDING ABSTRACT AWARDS, KAAACI 부스

외국인이 자유롭게 시내를 걸어다니기에는 무리가 있어 도시를 둘러볼 기회가 많지는 않았습
니다. 주로 택시 안에서 바라본 거리의 풍경은 처음 인도로 출발하기 전에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열악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섭기만 했고, 익숙하지 않았던 음식과 인도식 영어, 그들이 이야
기하는 “No problem”이 나의 마음을 열어불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마음이 열
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악의가 없는 것을 알게 되면서 따뜻하고 선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차도로 소가 지나다니고 차선은 잘 지켜지지 않고, 가끔 역주행 하는 차와 마주쳐서 놀라
지만, 무질서해 보이는 그 안에 그들만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후 내 안에 있는 웅
졸하고 닫힌 마음을 본 것 같아 부끄러워졌습니다.



사진 6) 릭샤가 다니는 인도의 거리와 전통 의상을 입은 인도 소녀들, 화려한 색감의 수공예품

길거리에는 삼성 핸드폰과 현대 자동차를 포함하여 눈부시게 빛나는 쇼윈도가 있지만 바로 옆에
는 먼지 많은 길거리에 노점을 펼치고 장사를 하는 나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어
현재보다는 5년 후, 10년 후가 기대되는 도시 하이데라바드에서 WISC를 통해 많은 공부를 하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햇빛에 그을린 검은 피부와 화려한 색감을 자랑하는 전통 의상, 선한 미소, “No
problem” 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